

비전·흥행 없는 민주 당권레이스 재개... 화두는 '위기 탈출'

호남권·충청권 온라인 합동연설회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아무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흥행에도 실패했다는 지적 속에서 당 지지율마저 하락하면서 당권 주자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 19 여파 탓에 비대면으로 전당대회가 진행되다 보니 당권 주자들의 목소리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당 대표 후보들은 저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하면서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호우 피해 사태로 중단됐다가 16일 온라인으로 재개된 호남권·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이낙연 당대표 후보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렵다. 민주당도 어렵다. 가장 어려운 시기는 끝났다. 경기를, 경기침체, 고용불안, 부동산 시장 불안정, 지역 간 불균형, 계층 간 불균형, 게다가 코로나19와 홍수 피해가 겹쳤다"면서 "지금은 위기다. 위기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를 당이 더 민감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청년과 여성의 참여를 제도화할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의 생활과 마음을 더 세심하게 헤아리면서, 모든 문제에 더 기민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미 정례화된 고위당정정협의와 별도로 실무 당정정협의를 더 체계화하고 활성화하겠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요구를 더 충분히 반영하도록 당의 모든 국회의원 과 원외의 지역위원장을 당의 정책위원회에 배치하겠다"면서 "당과 청와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후보도 "(지지율에) 일회일비할 필요 없이 할 일을 또박또박하면 된다"며 "당 대선주자를 위해 손에 흠을 묻히고 돌팔매를 맞는 김메이커 당대표가 되겠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왼쪽부터), 김부겸, 이낙연 당대표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호남권·충청권 온라인(온택트)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당 의사결정에 청년·여성 참여 제도화하겠다"
김부겸 "또박또박...돌팔매 맞는 김메이커 대표 될 것"
박주민 "당·차기 대선 안정적 관리라는 말 그만 뒤야"

말했다.

또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 선언은 평화 체제 구축을 향한 한 단계 도약이었다"며 "당 대표가 되면 국회를 통해서는 법적으로, 당 차원에서는 정치적으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 판문점 선언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국회 비준부터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주민 후보는 "지지율 하락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진짜 위기를 막을 수 있다"며 "당이나 차기 대선의 안정적 관리라는 말은 그만둬야 한다"고 이낙연 김부겸 후보를 직격했다.

한편 최고위원 연설회에선 핵심 지지층인 친문(친 문재인) 표심 잡기 경쟁이 뜨겁게 펼쳐졌다. 지지율 급락이 청와대와 문 대통령이 아닌 당이 잘못된 탓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강령 개정안 '한국판 뉴딜' 명시

더불어민주당이 8·29 전당대회에서 채택할 강령 개정안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과 행정수도 이전을 명시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위원장 안구백)는 지난 14일 "여성, 청년과 함께 호흡하고 100년 정당의 길을 열어갈 당 플랫폼을 정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령 전문에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립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오광록 기자 kroh@

코로나 재확산에 '체육관 전대' 고심

사회적 거리 2단계 댄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8·29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서울 올림픽 체육관에서 진행할지 고심하고 있다.

민홍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16일 "21~22일 수도권 대의원대회와 29일 전당대회를 어떻게 진행할지 조만간 당 지도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단 확진자 발생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적으로 전당대회 방식이 변경될 때까지는 기존 계획대로 좌석간 거리를 2~3

m 유지하는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행사를 준비할 예정이다.

서울 올림픽체육관의 수용 가능 인원은 2만명으로, 안문을 포함해서 1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까지는 체육관 전대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안구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통화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까지는 전대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만약 3단계로 격상되면 전대를 온라인 연설로 대체하는 등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부겸 "4년 중임제 등 분권형 개헌 임기내 완료"

국회서 당 혁신방안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17일 "대통령 권력 분산과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분권형 개헌을 임기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책임정당, 전국정당, 포용정당 등 3대 당 혁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 외에도 중앙정부의 독립적 권력 이양과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보장 등을 개헌안에 포함하겠다고 밝혔

다. 그는 "또한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 등 국민의 손으로 쟁취한 민주주의 역사와 시대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수도 이전 임기 내 완수, 중범죄 등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및 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국회개혁, 검찰개혁, 민주연구원 혁신 등을 책임정당을 위한 과제로 함께 제시했다.

김 후보는 아울러 "전국정당"을 위해 분권형 당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분노'

"광화문 집회는 국민생명 위협 용서 못할 행위"
"방역 방해행위 강제수단 동원 강력 조치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광복절에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 주도로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강행된 데 대해 "국가방역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경 대응 메시지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16일 SNS를 통해 광화문 집회에 대해 "대단히 비상식적 행태"라며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매우 단호하고 강력하게 조치하겠다.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증대한 고비를 맞은 것은 물론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코로나19 방역이 사실상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황 악화를 막으려면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공개적이고 확실하게 보여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사태를 어설픈 대응했다가는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은 'K방역'이 수포로 돌아가고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경제 활성화 계획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 여권의 지지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19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민심 이반의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위기에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이날 "법 국가적 역할을 총동원해 코로나 확산 저지에 나서달라"고 정부에 지시해 당분간 국정운영의 초점이 방역에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19 확산 여부가 개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 주 국방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일부 내각을 교체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는 이순진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김윤용 전 지상사령관 등이 거론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김강립 복지부 차관, 강기정 전 정부수석, 김연명 전 사회수석의 발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靑 "문 대통령 21일 여야 대표회담 제안...통합당 거절"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오는 21일 회동을 제안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공식적인 회동 제안이 없었다며 "국면 전환"을 위한 만남에 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재성 청와대 정부수석은 17일 브리핑에서 "8월에 당 대표를 초청해 국정 전반에 대해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강기정 전 정부수석이 실무적으로 협의했고, 제가 13일 김종인 위원장을 예방해 재차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 수석은 회동 일자를 21일로 제안했으나 통합당이 지난 16일 '불가' 입장을 전해왔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이번 제안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분기에 1회 개최한다는 기

존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제안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일부 청와대 참모진 교체 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등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협치를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회 개원식을 마치고 의회 지도부를 만나 "각 당 대표님을 청와대에 모실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며 "형식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통, 협치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이날 김은혜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빈말로 지나가듯 언저리에 던져놓고 마치 저희가 거부해서 (회동) 성사 안 된 것처럼 떠넘기고 있다"며 "무례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면 전환 쇼에 무턱대고 따르라 하면 저희는 따를 수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매매 물건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물건

공장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 : 12029㎡(3638.77평) 건물 : 1929.992㎡(583.823평)
감정가 : 2,054,798,910원 최저가 : 920,550,000원(45%) 유찰 3회

공장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여동리
토지 : 5004.7㎡(1513.9평) 건물 : 3867.85㎡(1170평)
감정가 : 3,600,859,200원 최저가 : 2,016,481,000원(56%) 유찰 2회

공장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 : 5388.4㎡(1630평) 건물 : 622.57㎡(188.3평)
감정가 : 5,106,825,160원 최저가 : 3,574,778,000원(70%) 유찰 1회

공장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 9917.4㎡(3000평) 건물 : 939.38㎡(284.2평)
감정가 : 1,758,815,640원 최저가 : 984,937,000원(56%) 유찰 2회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